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4호 (2001 겨울)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사색을 위한 인용 □

그런 예수는 없다

오강남

지난 4월 영국 BBC 방송국에서는 예루살렘 부근에서 발견된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의 두개골을 바탕으로 최근의 법의학적 지식과 컴퓨터 기술을 동원하여 역사적 예수에 가까운 얼굴 모습을 합성 발표한 일이 있다. 뚱뚱한 코에 까만 곱슬머리, 짙은 갈색의 피부를 한 전형적 농사꾼의 모습이었다. 그런 예수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이었다.

기독교를 서양 사람만 신봉할 당시에는 예수를 파란 눈에 금발을 한 서양 사람,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사람으로 그리는 것이 결코 이상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우리도 그런 그림에 익숙해져서 '예수' 하면 당연히 그런 남자 상을 머리에 그리게 된다. 우리 스스로도 혹시 누가 예수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선 무의식적으로라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신 예수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칸디나비아 사람일 수가 없다. 파란 눈에 금발머리를 가진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

이제 새로운 지구촌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어느 특수한 지역, 특수한 시대에 만들어진 일방적인 예수 상(像)을 아무 반성 없이 그대로 지니고 있을 수는 없다. 바이블 스토리 여기저기에 스칸디나비아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오는 파란 눈, 금발 머리의 예수를 참 예수와 동일시하던 그 순진성에 의문을 던져보는 것, 이것이 죄가 될 필요도 없고 이것이 교회 사랑이나 예수 사랑과 관계되는 일도 아니다. 특히 동양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구태여 서양 사람으로 상상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 나라 대로 새로운 예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림에 그려진 예수 상만 그런가? 생각이나 이론에 그려진 예수 상은 어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림이 없다. 현재 서구 신학계 자체에서도 종래까지 구미

의 (Euro-American) “힘의 논리”에 입각해서 형성된 기독교인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권력 지향적이었음을 반성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그려야 할 진정한 예수 상은 어떤 것일까? 그 예수가 가르친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물론 한두 사람이 머리를 짜서 정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지금·여기’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실존적 물음과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나오는 정직한 대답이 요청되는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실존적 물음을 거치지 않은 예수, 그런 예수는 없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 및 종교학과 과장)

— 『예수는 없다』(현암사)에서.

(6면에서 계속) 돌아오면서 경험하는 자아의 상호 변화, 관용과 대화, 자유의 정신을 허락하는 예수가 좋기 때문이다. 예수는 종이에 고착되어 말라버린 잉크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의 삶과 가르침은 낡은 문자보다 풍부하고 다양하다. 문자로 드러나지 않는 예수를 발견하고 배우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삶으로부터 깨달음을 얻도록 안내하는 상상력이야말로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어쩌면 예수는 술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변화와 다양성의 영구적 운동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내 안에서도 꽃이 된 것은 아닐까? 진리는 고착됨으로써가 아니라 변화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時中’의 능력으로 강력한 사실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질문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고백한다. 물론 이 글을 읽는 동문 선·후배님들이 아직도 인간임을 입증하지 못한 내게 “제목에서 ‘왜’를 빼지 그래”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하지만… 정말 빼야 하나? (65회·서강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저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정세근 엮음 / 위진현학 / (예문서원)

중국철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도 그 동안 국내 연구가 부족했던 위진현학(魏晉玄學) 공동연구서로서 왕필(王弼)의 현학, 배위(裴頠)의 송유론(崇有論), 곽상(郭象)의 독화론(獨化論), 승조(僧肇)의 중도(中道) 해석 등 주요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 정세근 동문(56회·충북대 철학과 교수)과 김시천 동문(66회·송실대 철학과 박사과정)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일만원)

위진현학



영성과 문화생활

김 종 걸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에서의 신앙과 사회에서의 생활사이에 서로 건널 수 없는 큰 간격이 존재한다. 그야말로 이 둘은 늘 영원한 평행선이였다. 그러면 신앙이 왜 실제적 삶에서 그렇게도 무기력한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과 문화생활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주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문화생활은 교회 밖에서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교회 밖의 문화생활로 가져와서 적용하길 원하시며 또한 이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생활을 누리는데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있어서 영성이 그것을 도와주며, 우리의 시야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문화생활이 단지 '어떤 문화적 방법들을 누리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가치관에서 기인하는 삶의 유형에서 오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들만의 고유한 특성,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선물로 주신 문화를 그분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애버딘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하워드 마샬(H. Marshall)은 "문화란 인간이 주위 환경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주체이다. 이것은 창조와 원리요 법칙인 동시에 구속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그리스도인을 위한 문화일 수는 없다. 문화는 선택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문화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혜택과 축복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문화란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감사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만한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의 동일한 지체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롬 6:13-14) 문화도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으며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문화 안에서 발견해야 할 또 하나의 가치는 '도구'에 대한 것이다.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목표 아래 복종한다. 우리는 영혼이 구속받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불의한 것이라도 선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요구받고 있다. 첫째, 문화명령(창 1:26-27), 둘째, 사랑명령(마 22:37-39), 셋째, 대 위임명령(마 28:20)이다. 하나님 사랑 계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출발이며 근거가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에덴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하나님 사랑계명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이며 인간 삶을 불드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문화생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부정적인 흐름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와와 아담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으며,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의 참고를 채우기 위한 목적에 눈이 멀어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의 행위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 또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문화적 사명(창 1:26-28)을 시간이 갈수록 인간은 자신들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잘못

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가시적 현상과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사회의 흐름에 반대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인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을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영적인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오직 기독교문화는 신앙에 의해 서만 양육되며 지탱될 수 있다. (대학원 · 수도침례신학교 교수)

● ● 알 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예금주] 승철동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정 경 일

테러의 시대인지라 내가 당했던 테러 하나가 생각난다. 고등학생 시절 교회 친구들과 어떤 산에 있는 기도원에 '방언 받으러' 갔더니 '욕쟁이 목사'로 통하던 그곳 원장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엄포를 놓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방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방언을 못 받는 놈들은 모두 개XX이다." 처음 듣는 이상한 논리였지만 다들 '아멘, 아멘' 하며 일제히 통성기도에 들어갔고 나도 개가 되기 싫어 열심히 목청껏 기도했다. 하지만 좀처럼 방언이 터지지 않았고 함께 갔던 친구들이 하나, 둘 앞으로 나가 인간임을 입증하고 모두 돌아오기까지 나는 다리가 저려오도록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다. 열 여덟 명의 일행 중 나 홀로 방언을 받지 못했고 동정심 많은 친구들은 나를 둘러싸고 방언으로 지원했지만 결국 난 개가 되어 산을 내려왔다. 그 목사의 기발한 분류체계대로라면 나는 아직도 인간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방언 못 받았다고 인간의 존엄을 부정해버린 그 목사의 폭언은 종교적 테러, 영적 파시즘의 한 사례였을 뿐이다. 신앙의 행위를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처럼 고정하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저주하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시즘은 사랑의 신과 무관한 인간적 오만의 산물이다. 바울이 자기를 의롭다 여기지 말라고 경계했음에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에서 생겨난 폭력심에 중독되어 왔다. 라틴 아메리카를 침략한 식민주의자들이 "이곳은 종교가 없는 야만의 세계"이며 '야만인'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학살과 정복, 수탈을 정당화했던 것도 이러한 그리스도교 중심적 오만의 결과이다.

이러한 종교적 파시즘은 현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교회 내적으로는 자신의 판단을 하느님의 판단과 동일시함으로써 단지 자신의 판단에 어긋날 뿐인 모든 신앙 형태를 단죄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의 신앙의 다양성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교권주의, 교리주의, 문자주의 등등 획일적 복종만을 강요하는 온갖 부정적 '...주의'들이 판친다. 또한 종교적 파시즘은 교회 바깥으로 향할 때 더욱 맹렬해진다. '일부'(였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장승을 찍어내고 불상의 목을 자르고 선량한 시민들로 구성된 '붉은 악마'를 진짜 악마처럼 몰아붙이며 '백의천사'를

만들지 않나, 온라인에서는 가학적 언어를 총동원하여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인들을 괴롭히지 않나,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순수한 신앙과 사랑의 소산이라기보다는 파시즘을 닮은 것 같다.

나는 대학생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파시스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특히 가장 성스럽다고 자칭하는 종교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파시즘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들이 타자에 대한 응징의 이유로 삼는 예수가 그렇게 속 좁은 분이였는지 의아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런 폭력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유일회성에 입각한 성전이라는 주장에는 소름마저 돋는다. 하지만 구원의 유일회성이란 인간실존의 절박성에서 나온 것이지 배타적 폭력을 위한 기제로 상상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파시즘에 맞선 대화와 공존의 여행을 떠났다.

한번은 남도의 어느 절에 가서 새벽 예불에 참여했다. 열심히 108배를 하고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면서 몸과 정신을 함께 울리는 불교의례의 깊이를 경험했다. 그런데 날이 밝자 학부생 중 한 친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나는 열기적 헤어스타일의 우상에게, 단하 천연선사가 쪼개어 불을 때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한 무력한 나무 덩치에 절을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불교 가르침의 궁극이 공(空)이고, 공은 실천적으로는 비움이고 낮춤이니 절은 그 낮춤을 몸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들에는 낮춤의 육체적 표현이 풍부하다. 파키스탄 모헨조다로에서 공항수비대 군인들의 작은 모스크를 방문해 무슬림들의 기도를 지켜본 적이 있다. 그들도 메카 방향 키블라를 향해 절을 했는데 불교의 오체투지와 다른 점은 코와 이마가 함께 땅에 닿아야 한다는 점이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엉덩이가 하늘을 향하는 민망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기도 전 일상의 시간에는 아랍인 특유의 남성성을 과장하며 괜히 허공에 공포를 쏘아대던 그들이 의례의 순간에는 '폼생폼사'를 버렸다. 아마도 그들은 인간들이 보기에 민망함을 신경 쓰지 않음으로 더욱 신 앞에 낮아짐을 표현하고 싶어했던 것 같다. 이러한 만남은 진정 신 앞에 나를 낮추고 살아왔는지를 반성하게 하는 자극이었다. 폭신한 방석,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가끔은 딴 생각도 하며 예배를 드려왔던 나를 그들의 몸의 언어가 두들겨 깨우쳐 준 것이다.

이처럼 나는 살아있는 종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종교경험에 넘어가 보면서 인간 다움과 종교적 삶의 의미를 생각한다. 때로는 신앙을 통해 자유함을 얻고 삶의 고단함을 이겨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때로는 소비사회의 파괴적 본질을 따라가며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종교성에 빠져드는 모습에서 절망하기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반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안의 파시즘에 실망하고 이웃종교⁹ 사람들을 만나 감동하면서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 것일까? 그것은 원래 없었을 경계를 넘어갔다 (2면에 계속)

현상학과 25년 간의 만남



홍 성 하

이제 다시 입시철이 시작되었다. 시험방식이나 내용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겪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학입시를 준비하였던 시절이 떠올라 묘한 기분마저 든다. 고등학교 1학년말에 우연한 기회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어 러셀의 『서양철학사』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책 내용이 어려워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난해함 때문에 더욱 철학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철학에 대한 관심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시절에는 학생기록부에 본인의 장래 희망을 철학자라고 쓸 만큼 확고해져 갔다. 7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많은 대학생들이 경험했던 암울한 사회분위기가 철학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데 크게 작용했었던 것 같다. 주위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길에 접어든 지 벌써 25년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반성해 보면 부끄러울 뿐이다. 철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기대를 갖고 시작한 대학시절, 그리고 다시 철학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도 망망대해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런 나에게 철학, 특히 그토록 오랫동안 매달리고 있는 현상학과의 인연에 대해 글을 써 달라고 하니 난감하고 괴로울 뿐이다. 무엇보다 별반 대수롭지도 않은 신변잡기 식의 내용을 쓰게 됨이 더욱 민망스러울 뿐이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철학 중에서도 현상학과 보내게 된 인연도 되돌아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웠다. 대학입시가 끝난 겨울에 철학과에 가려면 독일어를 해야 한다는 말에 입학도 하기 전에 혼자 독일어 문법책을 가지고 독학을 시작했다. 물론 제대로 될 리는 만무했다. 관사 부분이 유독 복잡한 독일어 앞부분에서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계열별로 신입생을 뽑았던 시절이라 인문계에 입학했지만 철학을 전공하겠다는 마음을 버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당시 송실대 철학과에 재직하셨던 은사님들의 고매한 인격과 학식이 이런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기에 충분하였던 것 같다. 대학 1학년 시절 독일어를

다시 외국어로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었다. 1년 동안 대학에서의 강의와 방송을 통해 독일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독일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시에 송실대 철학과에서 유독 많은 원서강독, 특히 2학년부터 이미 독일어 원서강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일어를 알지 못하면 철학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했기에 많은 시간을 독일어에 할애했던 것이다.

1학년말에 이런 독일어 기초실력만으로 혼자 원서를 읽어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서점에 가서 우연히 뽑은 책이 『현상학의 이념』이라는 후설의 5개 강의로 이루어진 아주 얇은 원서였다. 이렇게 처음으로 후설과 현상학이라는 명칭을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1학년 계열시절에는 전공은 배우지 않고 주로 교양만 배웠고, 철학개론 시간에도 현대독일철학까지 진도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후설과 현상학이라는 단어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낯선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이유 하나로 그 책을 선택해서 혼자 해석을 하면서 읽어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한나절이 걸려도 책 반쪽을 이해하기는커녕 제대로 해석도 못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aber, und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단어 외에는 대부분 단어들은 전부 사전에서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단어를 일일이 사전에서 찾아 보니, 당시에 내가 소지한 사전에 동사를 명사화한 단어의 뜻을 '위임'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위임하다의 '위임'으로 알고 독일어에는 '위임'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나 하면서 의아해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난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찾는 단어의 수가 줄어들면서 약간씩 문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혼자 현상학에 매료되어 가던 중에 당시에 하이델베르크에서 현상학으로 학위를 하고 모교에 부임하신 김영한 교수님 덕분에 현상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부와 대학원에서 행한 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데카르트적 성찰』과 『경험과 판단』 등 후설의 다른 저서들도 접하게 됨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만난 현상학은 철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 독일유학을 결정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독일 대학 중에서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점도 후설과 하이데거가 재직하였고 후설의 미간행 유고가 보관되어 있는 '후설 아키프'가 있기 때문이었다. 후설과 하이데거, 그리고 후설의 조교였던 핑크가 재직하였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는 과거의 명성에 비해 왜소해졌지만, 그래도 현상학을 논하게 되면 반드시 언급되어지는 중요한 대학이다. 1985년 기대와 흥분으로 독일 유학 길에 오르고 거기에서 핑크의 제자이면서 하이데거 해석가로 널리 알려진 헤르만 교수 밑에서 "기억의 현상학"이라는 주제로 학위를 마치고 다시 강단에 서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연히 접한 후설의 저서가 나의 청년시절을 바치게 했고 중년이 된 지금도 내 삶의 일부가 되는 끈질긴 인연이 되었던 것이다. (53회 ·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디오게네스의 등불을 밝히자

— 경민대학 교수 제갈창수 동문(50회)을 찾아서 —

· 인터뷰 및 정리: 김범수(동문회 간사·대학원 박사과정)

박유리(학부 4학년)

처음부터 제갈창수 선배와의 만남은 은근히 기대되었다. 범수 선배가 제갈창수 선배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제갈창수 선배를 만나기 위해서 범수 선배와 나는 긴 시간동안 지하철을 타야 했다. 그것도 교외선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들이 기다림을 설렘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무려 1시간 40분에 이르는 긴 이동시간 동안 나와 범수 선배는 선배들 얘기로 설렘을 다독였다. 물론 중간에 돌아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신문만 뒤적인 적도 있지만...

의정부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대략 7시 40분이었다. 무례하게도 우리는 약속 시간을 10분이나 어겼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제갈창수 선배님은 무척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우리는 곧

바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학교를 화두로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우리가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가 인터뷰를 당해야 했다. 범수 선배는 이런저런 학교 얘기를 한참 동안 했다. 그리고 제갈창수 선배님은 동문 근황을 열심히 물으시는 것이 아닌가!(이러다가 인터뷰 못하는 거 아냐?) 눈치 없이 범수 선배는 아주 친절하게(?) 학교 얘기며 동문들의 근황을 전했다.

#시작부터 삼천포로 빠지다: 동문 근황에 관한 질문

-선생님들 건강을 어떠시니? (선배님은 선생님 건강이 제일 걱정되시나 보다.)

"가장 걱정되는 분은 최명관 선생님이지요. 선생님 댁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가는데요. 한동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몇 해 전에 뇌수술을 받으셨어요. 뇌수술 후에는 옛날 사람들은 잘 기억하시는데 요즘 일을 잘 기억을 못하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해요. 그리고 조요한 선생님은 여전하시죠. 예전부터 골골 80이라고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곤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면 안병욱 선생님은 참 건강하세요. 요즘도 제가 알기로는 특강을 나가시거든요.”

-역시 철학과는 선생님들이 계셨을 때가 전성기였어. 안병욱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셨지.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을 능가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선생님들 생각하면 괜히 죄송하고 그래.

(제갈창수 선배님은 내년 초쯤에 같이 최명관 선생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자는 얘기도 하였다.)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이번 학기에 참 힘들게들 지내시죠. 학교가 워낙 뒤송송하다 보니. 이유야 어찌됐건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낫죠.”

-맞아. 김기순 선생님은 이번에 퇴임하시지 않았나? 퇴임식은 어떻게 했어?

“이번에 학교가 뒤송송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죠. 원래 퇴임하실 때 『사색』지 만들어서 논문 증정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직 『사색』지도 못 만들었어요. 아마도 겨울 방학쯤에 신년하례식 겸해서 제대로 증정식을 해야겠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제갈창수 선배님과 범수 선배는 한참 동안 동문 선배들의 근황 얘기를 했다. 두 사람은 인터뷰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나 혼자서 왕따 당했다. 그것도 40분을 넘게(ㄱ. ㄱ.)

#강단에서

여기서 내가 참지 못하고 본연의 임무를 생각했다. 계속 이렇게 지켜보다가는 오늘 인터뷰는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열심히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선배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올해 경민대학 교수가 되셨다고 하던데…

“참, 뭐라고 해야 할지. 철학을 해서 밥 먹고사는 게 참 힘들지. 범수 너도 앞으로 고생하겠다. 원래 밥 먹고살려고 철학 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무시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감사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20년이더라구. 처음에는 송의여대에서 논리학이며 교양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어. 정확하게 19년이 지나 경민대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거야. 여기도 좀 힘들게 자리 잡았지. 그나마 다행인 건 후배들한테 여기 강의 자리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거야. 누구더라? 이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면 어떻게 생활하겠어. 나야 의정부 출신이라서 이곳에서 그나마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아참, 범수야 요즘 삼열이는 어떻게 지내냐?”

에고, 다시 삼천포로 빠지려고 한

다. (--;)

-경민대학은 어떤 학교예요?

“기독교 대학이야.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여기도 창립자가 영락교회야. 그래서 학교 재단에서 중요한 선생님도 잘 아시지. 참 경민대 목사님 중에 송실 대학교 출신이 한 분 있어. 경영학 박사인데, 관광경영학과 교수지. 김인석 박사를 잘 알더라구. 학교 신문에 발령 기사가 나니까 그 양반이 먼저 찾아와서 반갑다고 하더군. 고맙더라.”

-강의는 몇 시간이나 하시나요?

“주당 20시간쯤? 많이 하고 있지.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이 있거든. 경기직업훈련원이 있는데, 경민대학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강의 시간이 좀 많아. 야간에도 강의가 좀 많지. 그래도 야간강좌 수업 분위기가 좋아. 아무래도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배우겠다는 일념을 대단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야간 강의가 더 편할 때도 있어.”

#언론과의 인연

-지금까지 강단에서만 활동하셨나요?

“야, 근데 니네들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야 하나. 나도 인터뷰 많이 했는데, 이렇게는 안 한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녹음기까지 들이대고 그러냐. 다 알아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정리하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거 몇



정갈창수

개만 신경 쓰면 돼. 나도 지역 신문 8년 동안 만들었어. 인터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되니?”

-지역신문이요? 어떤 신문이었어요?

“의정부신문. 일년에 기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구. 그러니까 한 달에 칠백 가량 들어.

그럼 일년에 팔천, 구천 들지. 광고 수입도 없고, 참 힘들더라구. 나중에는 돈에만 신경 쓰다가 신문 발행 날짜로 틀렸지. 세상에. 그러다가 문 닫았어. 하하. 기업주한테도 할 말이 없더라구. 나름대로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했는데, 광고 따내기도 힘들고, 돈이 돌아가지 뭐 하지. 거창하게 시작해서 조용히 끝냈지. 하하. 그리고 보니까 누구더라. 옛날에 한겨레에 있었던... [김승국 선배님] 요즘 뭐하지는 모르겠네. 옛날에 유네스코에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디지털 『말』 편집장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말』지?”

-그냥 『말』지가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디지털 『말』이라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인터넷으로 한 번 찾아 봐야겠네.”

-신문사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편집장이었지. 나중에는 사설을 쓰기 시작했어. 사실 지역 신문에서 사설 쓰는

게 쉽지는 않더라구. 지역 얘기를 사실 소재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고. 천상 일간지 사실의 형태를 떨 수밖에 없는데, 도저히 못 당하겠더라. 일간지에서 사실 쓰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 편 안 쓰거든. 그리고 엄청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더군. 자료 수집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철학을 했으니까 버텼지."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 재미있었던 일은 없었나요? 왜 있잖아요. 옛날 『대학별곡』에 나오는 에피소드 같은 일들.

"하하, 그거 뭐, 옛날에 선생님들한테 못할 짓 많이 했지. 최명관 선생님이 옛날에 불광동에 사실 때, 그때 사모님이 무척 고생하셨지. 저녁에 대여섯 명이 몰려가는 거야. 그러면 사모님이 저녁 차려주시고 술상 봐주시고, 무척 반겨주셨지. 술 먹고 선생님 댁에 잔 적도 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선생님께서 관찮냐고 하시면서, '야, 꼴물이라도 타다줄까?' 하시더라구. (하하...) 최명관 선생님이 철학과 선생님 중에서 제일 깐깐하시지. 그런데 선생님이 정이 제일 많으셨어. 그리고 우리가 불쑥 저녁때 선생님 댁에 쳐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안병욱 선생님은 저녁에 우리 쳐들어갈지 모르니까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 하하. 옛날에 술 먹다가 조요한 선생님 댁에 쳐들어간 적이 있어. 술 좀 더 먹으려고. 젊었을 때 객기였지. 근데 솔직히 그 날 잘 기억이 나지 않거

든. 이유야 어찌되었건, 다음날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나한테 대문에 붙어있던 문패를 찢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기억이 없어. 하하. 술 먹었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하지. 아무튼 옛날 얘기하면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워."

-학교 다닐 때 친하셨던 분은 누구세요?

"옛날에 망나니 파(?)하고 선비 파하고 두 부류가 있었지. 지난 번 인터뷰 보니까 장영호, 남근우 있었는데, 남근우하고 이상강이 제일 친했어. 둘은 소위 망나니 파. 장영호는 선비 파였지. 그리고 관동대 이윤일 교수, 그 양반도 선비 파였지.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다녔어. 그리고 동기로 박상선 씨가 있어. 나보다 몇 년 위야. 능력도 있는데 독일에서 아쉽게도 박사를 못 받았지. 그 형수님이 대단하셔. 그리고 송의여대 강형철 교수도 있지. 옛날에 김선호 씨라고 있었어. 같이 학교 다녔는데 지금 은행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김승국 씨가 있었지. 같이 봉천동 고개에서 술 먹던 생각도 나네."

-요즘 그분들 만나세요.

"절연이다, 절연. 내가 요즘 의정부에 틀어 박혀서. 서로 연락이나 제대로 주고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범수, 니가 중요한 거야. 서로 안부 전해주고 그래야지. 동문회 간사 일이 그래서 중요해. 그리고 이런 자리 만들었을 때 서로 안부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신경도 써주고."



#마치며

-끝으로 동문회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동문 단체에 참석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철학과의 역사성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송실철학의 역사는 사실상 송실의 역사와 다를 바가 없지.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비록 내가 동문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는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앞으로도 철학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고 싶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송실대학교의 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디오게네스의 등불을 밝혀야 하겠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많은 여운을 남긴 인터뷰였다. 식사를 마치고 선배님은 의정부역까지 배려다 주셨다. 그런데 역을하게도 열차를 탄 것은 나 혼자 뿐이었다. 제갈창수 선배님과 범수 선배는 따로 어디를 간다고 했다. 아마도 선후배끼리 술 한 잔 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시간도 늦었고 의정부에서 집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두 분이 무엇을 하건 신경 쓸 수 없었다. 그 자리에 끼지 못해 더 아쉬웠다. 다음에는 일찍 인터뷰 하러 오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선배님이랑 따뜻한 뒤통이도 할 수 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곳 의정부에서 밤늦게까지 선배랑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도 함께 담고 집으로 돌아왔다.

동 문 회

1. 동문 소식

▶**임순삼** 동문(38회·목사) 지난 2월 2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세계선교부 총무를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도미니카 동화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김재욱** 동문(49회) 지난 3월에 도봉 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석관고등학교로 전근하였다.

▶**배선복** 동문(53회·철학박사) 5년에 한번씩 열리는 국제 라이프니츠 학회에 한국인 학자로는 최초로 초청 발표를 했다.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베를린 기술공과대학에서 열린 학회 모임에서 「현대 논리학의 관점에서 본 라이프니츠의 이진법과 역의 상징체계」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배선복 동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후 연수과정(꼭신환 교수 지도) 중에 있다.

▶**최기표** 동문(56회) 10월 7일 한국의 집에서 신부 전문연 씨(동국대 불교학과 대학원)와 화촉을 밝혔다.

▶**오지석** 동문(61회·목사) 10월 목사 안수를 받고 의정부 염광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다.

▶**김광현** 동문(64회) 올 11월부터 1년 동안 “세계화의 문제와 보편 윤리”라는 주제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신진인력 과정 연구 기금을 받게 되었다.

▶**이종원** 동문(65회) 지난 7월 현주컴퓨터

터 오류동 지점을 개점하였다. (02) 689-4390

▶**서경석** 동문(65회) 지난 8월부터 회기역 부근에 「피자매니」라는 상호로 피자부페집을 개업하였다. (02) 965-6752/959-6752

▶**한동익** 동문(68회) 10월 27일 신부전계림 씨와 신세대 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심재근** 동문(69회) 지난 9월부터 고성교육청 지원과에 발령을 받아 근무한다.

▶**고영삼** 동문(70회) 지난 3월 서울 봉천동 소재 서울미술고등학교 윤리교사로 임용되었다.

▶**지동창** (70회) · **심수정** 동문(70회) 11월 4일 63빌딩에서 화촉을 밝혔다.

▶**김재환** 동문(72회) 9월 8일 신부 조수정 씨와 상도중앙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철 학 과

▶**대학원**에서는 10월 19일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간발표가 있었다. **박상선** 씨(50회)가 “리yota 철학에 있어서 아방가르드의 개념”을, **이장형** 씨(대학원)가 “니버의 사회윤리 구상에 나타난 현실주의적 인간관 연구”를, 그리고 **이홍우** 씨(대학원)가 “근대 서양철학사에 나타난 감정부각의 흐름에 따른 감정의 위치와 능력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였다.

▶10월 22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간 발표가 있었다. **문영식**씨(대학원)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의 본질과 속성”을, **배기훈** 씨(69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연과 운에 대하여”를, **백두환** 씨(72회)가 “정신에 대한 물리주의적 설명의 한계”를, 그리고 **채규식** 씨(대학원)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증명에 대한 고찰 — 『반이교도대전』 1권 1장에서 13장을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주소 업데이트

▶**신하령** 동문(55회 · 철학박사) 서울시 도봉구 방학1동 720-1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105동 2301호. (02) 3491-3559.

▶**양승렬** 동문(56회 · 철학박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 3동 172번지 대림아파트 105동 1503호. (02) 939-5372.

▶**구영준** 동문(59회) [직장]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707번 (주)BYC. (053) 383-8676/ 016-423-6320.

▶**박형성** 동문(60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583-6 유현마을 113동 801호. (031) 998-0602.

▶**안용택** 동문(60회) [직장]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조읍리 37-12 엘립엔지니어링.

▶**원수연** 동문(60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파트 109동 405호.

▶**이종원** 동문(63회 · 목사) 서울시 구로

구 고척동 249-105 대양연립 101호.

▶정용석 동문(64회)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1리 525. (031) 884-8576.

▶권기동 동문(6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서한 화성아파트 106동 1502호. (053) 781-8212.

▶윤지현 동문(65회) 경기도 의정부시 민낙동 산들마을 길훈아파트 205동 703호. (031) 827-7872.

▶마애리 동문(66회) 경기도 파주시 급촌1동 팜스프링 122동 703호. (031) 946-2694.

▶강신철 동문(67회·전도사)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2-13.

▶남경호 동문(67회) [직장]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29-13 그랜드빌딩 6층.

▶전성민 동문(67회) [직장]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231-9 한라공조(주) 울산공장.

▶유재민 동문(68회) 서울시 구로구 개봉본동 153-79.

▶고영삼 동문(70회) [직장]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서울미술고등학교.

▶심재근 동문(71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226-3. (033) 651-6012.

▶김재환 동문(72회) 서울시 동작구 사당 5동 181-364번지 101호. (02) 598-6955.

▶이용규 동문(대학원) 서울시 관악구 신림 4동 498-9. (02) 3281-6548.

기 타

I. 연락처 변경 알려주세요

▶직장이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생기면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바로잡습니다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제13호(2001 가을) 13면 <역서 출판을 축하합니다>의 첫 문장은 "이 책은 하버드 대학의 연칭연구소를 이끈 벤자민 슈워츠(1916-2000)와 함께 서양의 동향학의 양대 산맥인 세계적인 중국 철학자 앤거스 그레이엄(1919-1991)의 명저『Disputers of the TAO』를 한신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나성 동문(47회)이 완역한 것이다"로 바로잡습니다.

III. 지금 모교에서는...

▶2000년 12월 21일 학교법인 송실재단 이사회의 어윤배 총장 연임 결정에 의해 촉발된 모교의 학내 분규는 일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소강 상태인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없이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학내외 유관기관의 움직임을 정리한다.

▷송실재단: 10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① 어윤배 총장의 사표 제출을 확인하는 한편,

② <새 총장 선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곽선희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5인(고정택, 김영호, 박근용, 오도영 이사)의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③ 그간의 학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회에 참여할 이사 2인(고정택, 박근용 이사)을 선출하였다.

▷교수협의회: 위와 같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차기 총장 선임을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성명을 10월 26일 발표하였다. 이후 정오 침묵시위만 계속할 뿐 그 밖의 다른 행동은 일체 삼가고 있다.

▷노동조합: 11월 9일 개최된 제20차 단체협상에서 쟁점으로 남아 있던 17개의 조항을 합의하고 11월 12일 학교 당국과 단체교섭을 체결함에 따라 225일간의 총파업을 정리하고 업무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총동문회: 모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0월 4일 그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위원회는 첫 번째 모임에서 ① 어윤배 총장은 모교의 학사 운영 파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과, ② 곽선희 재단이사장은 지난 17일 교협회장과의 모교정상화를 위한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 모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상오(공동위원장·영문 36회, 총동문회장), 장덕수(공동위원장·철학

30회), 박근용(동문회파송 재단이사·철학 35회), 김광호(법학 34회), 심수태(경제 44회), 박유영(경제 44회), 이평식(간사·법학 58회), 김기영(공교 56회), 김상립(산공 66회), 이순웅(철학 57회), 조양호(기계 61회):

▷그런 가운데 9월 25일부터 3주간 교육인적자원부의 종합감사가 있었으며(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예비감사, 10월 8일부터 20일까지 본감사), 그 결과는 11월 말경 통보될 예정이다.

IV. 송실철학강좌

▶지난 3월 29일 제8회 송실철학강좌를 개최한 이래 예정대로라면 제9회(5월), 제10회(9월), 제11회(11월) 강좌가 열렸어야 하지만 학내 제반 형편상 그렇게 되지 못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많은 동문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 학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져 모든 일이 정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계간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통권 제14호 (2001 겨울)

2001년 12월 1일 발행

발행인: 이 승 하

편집인: 한 석 환

간 사: 김 범 수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